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욥기를 통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 받는 고난을 보게 됩니다. 의인이 받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욥기에는 의인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욥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죄와 상관 없이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지마는 십자가을 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욥기를 통해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욥기에 보면 욥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이 지금부터 2천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죄와 고난을 대신 지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9장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를 향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마는 사실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셔서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대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하여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 오면 우리들은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죄의 본성은 교만과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생의 힘든 고난이 아니면 계속 교만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만 사람 엘리바스는 5장4절의 말씀에서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라고 말하고 있고 나아마 사람 소발은 20장10절에서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악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하면서 21장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며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저주가 흐르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5절 말씀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은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자녀들도 영향을 받아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은 심판은 멸망뿐이고 지옥에 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자녀들도 그 부모의 영향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는 모두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의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서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1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또한 에스겔 18장20절에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가 가계에 흐른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 된 사람을 가리키며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지를 여쭈어 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은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유 없는 고난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지마는 대체로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해 찾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자신이 겸손해지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겸손해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고난을 통한 우리가 얻어야 할 유익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나 한 사림의 죄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그 다음세대에도 계속해서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